

“전주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97개 항목 검사결과 모두 음용 수질 ‘적합’

청정 1급수로 만든 전주시 수돗물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30일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4개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용담댐 원수와 고산정수장에서 생산·공급되는 정수, 노후관 수도꼭지수, 수돗물 병입수(전주얼수), 좁은목 지정약수터 등 전주시에 공급되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증을 실시했다.

수질검증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안전한 물로 판명됐다.

검증에 참여한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은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소, 전주대학교

전남지역 이산친환경연구원 등이다.

이는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전주수평위)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를 비롯한 4개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료채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이 직접 용담댐과 고산정수장,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급수과정별 공급되는 먹는물을 직접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의 결과물이다.

특히, 전주수평위는 수돗물 수질검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생물 3종,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12종,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16종,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2종, 심미적 영향물질 17종 등 총 97개 항목 중, 미생물과 휘발성 유기물질, 건강

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 페놀 등 43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질산성질소 등 16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4개 검사 기관 분석 데이터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시민의 생명수인 용담댐 상수원수에 대해 가뭄과 녹조 현상 관련 주요 수질항목인 클로로필a 등 3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용담댐은 낮은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청정 1급수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 7월부터는 장마철 대비 24시간 수질관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수돗물 소독처리 강화와 휴냄새 등 냄새유발물질 항목에 중점 분석 및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용욱 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 수돗물에 대해 용담댐 원수 및 정수장부터 최종 수도꼭지수까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에 공급되는 먹는물에 대해 검열의 검증프로그램을 강화해 전주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중 원·정수 수질성적서와 4개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 검증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글로벌전주 서포터즈’ 활약 엄지척

외국인 관광 가이드·지역 홍보대사 역할 특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전주의 관광·문화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전주 서포터즈’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내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전주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대학생과 교수, 외국인 교환학생, 원어민 강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글로벌전주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전주 서포터즈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SNS인 웨이보를 운영하며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기술, 음향, 편집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는 전주시의 영문 SNS인 ‘전주, 한국의 모든 것(Jeonju, All about Korea)’ 운영과 발맞춰 해외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전주시 영문 SNS에 직접 제작한 전주에 관한 동영상에 영어 자막을 입힌 후 게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전주의 축제와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대사이자 관광가이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서포터즈는 동영상 번역과 국제행사 시 통역을 담당하고, 외국인 서포터즈의 경우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했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가 직접 제작해 SNS에 올린 영상과 시에서 제작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서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특히, 상반기 동안 가장 활발히 활동한 3명의 서포터즈로부터 전주시의 축제 동영상 제작소감과 투어 패스를 이용한 전주관광 동영상에 출연한 소감을 듣고, ‘전주시 세계문화주간(영국주간)’ 시 통역을 맡았던 서포터즈로부터 국제행사 참여 경험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활동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영상제작 전문가를 초청해 서포터즈의 임무 수행시 필요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기법 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또, 하반기 글로벌전주 서포터즈의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론니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3대 도시, CNN이 극찬한 전주 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이것이 바로 전주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는 전 세계로 급속히 번지는 SNS를 이용하는 영리한 전략으로 파급력 있게 전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해 왔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과 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전주시 안보태세 확립 힘 모은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군부대·경찰서 등 협조체계 유지

전주시와 군부대, 경찰서 등이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나섰다. 시는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 경찰서 등 통합방위 주요기관장과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실시된 통합방위태

세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 보고, 전주2대대의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점검 및 훈련 등에 관한 보고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참석 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발전방안과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역안보태세를 굳건히 확립해 나

가기로 했다.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요즘처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시점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의는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통합방위 능력을 더욱 높인으로써 비상대비 태세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노모 모시던 주 분신자살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봉양하던 아들이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30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29일 오후 9시 56분께 A(52남)씨가 정읍시 자신의 집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자살했다.

A씨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또한 현장에서 휘발유 통과ライター 같은 도구가 발견됐다.

경찰관계자는 “오랜 기간 노모를 살펴온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완산수영장 원수 재활용

전주시설공단 완산수영장이 풀장 원수 재활용 시스템 개발로 연 1,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질관리시스템은 풀장 원수를 흘러 체크하는 방식이었으나 직원들의 아이디어 도출과 내부 토론을 거쳐 기계적 직원이 설계하고, 재순환 가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직접 구매, 순환시스템을 설치해 연간 2,100톤의 물을 재활용함으로써 1,4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공단 수질경영본부 권영대부장은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창안으로 ‘에너지절약 혁신공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15필지 이의신청 검증 돌입

전주시가 최근 결정·공시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완산구 5, 덕진구 10)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다.

전주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13만7,520필지로, 이 중 지난 5월 3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총 15필지이다.

이의신청 필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향요구는 인근 토지 대비 현실적으로 낮은 지가, 하향요구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데 따른 과세부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재조사 등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오는 14일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공시지가는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확대

전주시가 예비·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기존 혼인신고 전·후 6개월에서 7월부터는 혼인신고 전 6개월부

터 혼인신고 후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실시한다.

‘예비부부·신혼부부 검진’은 결혼 전 예비부부의 건강상태 점검은 물론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검진으로, 임신 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등을 사전에 체크해 질병의 조기 진단은 물론 예방 가능한 질환을 사전 관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